S#1 / 학교복도 / 노을 질 때

맴맴---맴맴----

매미 소리가 들린다.

조용하지 않아야 될 교실이 조용하다. 준희는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역시나 모두가 준희를 두고 하교를 했다. 이런 상황이 준희는 익숙하다. 준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다. 5시 18분. 확인을 한 후 핸드폰 앨범에 있는 '성아의 휘파람'을 재생하고는 다시 엎드리고 눈을 감는다.

S#2 / 학교 복도 / 과거 회상 / 노을 질 때

(옛날 필름 같은 영상으로)

(낮은 음 하나 꾹 누르는 소리)

입만 보이는 성아가 웃으며 복도를 지나간다

장면전환

칠판에서 휘파람을 부르며 시계를 그리다 카메라를 바라본다. 칠판 옆에는 사자 그림과 빛을 가져오자!라는 글씨 등 이상한 그림들도 그려져 있다.

장면전환

도서관에서 입만 보이는 성아가 입술을 뜯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성아: 학교 끝나고 시간 괜찮아?

그러고는 불안해 보이는 입꼬리를 올려 살며시 웃는다. 성아 뒤로 창문에서 하늘이 무너질만큼 하늘이 파란 빛을 띤다. (낮은 음에서 휘파람 소리로 이어짐)

준희가 그런 성아를 핸드폰으로 찍는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가며 성아의 얼굴 전체를 비춘다. 준희의 핸드폰 화면을 클로즈업.

카메라 화면에 side A : 선택이라고 나온다.

S#3 / 교실 / 낮

(약간 라이트하면서 노란 필터를 입힌다)

까만 화면

댕-----시계 종소리가 울린다

페이드 인

맴맴--- 매미가 울고 있다. 하나하나 떼어진 책상. 창가 쪽 애매한 뒷자리, 준희가 엎드려서 자고 있다.

댕----

그러다 종소리에 움찔하며 깬다. 이어폰에서는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준희는 핸드폰에 눈을 둔다. 유투브 재생 목록에 올려놓은 휘파람 소리다. '성아의 휘파람' 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다.

준희는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다 시계를 본다. 시간은 5시 18분. 이미 다른 아이들은 다 하교했는지 교실에는 준희밖에 없다. 주변을 둘러보다 준희는 팔 옆에 있는 쓰레기를 툭 친다. 쓰레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섞인다. 책상 주변의 쓰레기를 뒤로 하고 준희는 교실 문을 열고 나간다.

S#4 / 학교 뒷편 / 과거 회상 / 노을이 거의 지고 있을 때

(옛 영상 느낌으로)

하교를 하고 있는 준희. 앨범을 돌려보다 성아와 찍은 사진을 본다. 그러다 놀라는 얼굴로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간다.

장면 전환

학교 뒷문에는 아무도 없다. 준희는 헐떡이며 숨을 고른다.

장면 전환

교실 벽에는 달력이 있고 달력은 계속 날짜가 바뀐다.

교실 앞 복도에서 준희는 차성아라는 이름에 전화를 계속 걸고 삐 소리가 들린다.

준희는 이미 쌓여있는 메시지에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낸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빈 책상을 쳐다본다.

S#5 / 하교길 / 현재 / 낮

준희는 길을 걷는다. 그러다 버스 정류장에 가 자리에 앉는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 옆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걸어 오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다. 성아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성아라는 느낌이 들었다. 성아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왜 학교에 오지 않은걸까 궁금했지만 준희도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성아가 바로 옆까지 왔다. 성아는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를 기다렸다. 준희는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차 신호등은 초록빛으로 바뀐다.

정적. 밖의 소리는 분명 정적일 것이라고 준희는 생각한다. 귀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놓칠 수는 없다. 그러다 버스가 오고 성아는 그 버스에 타려고 한다. 준희는 입 밖으로 작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그 소리는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고는 버스에 타려고 하는 성아를 슬쩍 쳐다본다. 그녀가 아니었다. 시선을 의식했는지 성아가 아닌 그녀가 준희 쪽을 바라본다. 준희는 고개를 돌린다. 그러고는 이내 고개를 숙인다. 차 신호는 초록 빛에서 주황 빛으로 바뀐다. 신호가 바뀌자 버스도 기다렸다는 듯이 떠난다. 이내 주황빛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뀐다. 여전한 그였다.

준희 : 아니었네..

준희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그러고는 숨을 참는다. 숨이 막혀온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숨이 막힐수록 어지러웠던 생각은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

멀어지는 버스를 뒤로 휘파람 노래가 즐겨 듣는 노래로 넘어가고 준희는 다시 숨을 고른다. 준희는 핸드폰 앨범에 들어가 성아의 마지막 영상을 본다. 치지직 소리가 들린다.

S#6 버스정류장 / 낮

준희는 잠에서 깬 듯 눈을 감았다 다시 뜬다. 멍하니 주변을 하나씩 보다가 성아가 아닌 그녀를 쳐다본다. 옆 사람은 이어폰을 안 끼는지 라디오 소리가 휘파람 소리를 뚫고 들어온다.

여자 MC가 말을 한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빨간 차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남자 출연자가 말한다.

"그게 뭐죠?"

"여기 오는 길에 빨간 차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집을 나오기 전에 빨간 차를 볼 때마다 5만원을 준다고 했다면 빨간 차를 몇 대나 봤는지 기억했을까요?"

"그럼 빨간 차들을 엄청 찾아봤겠죠."

"맞아요. 그게 운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기회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서 아무 곳도 쳐다보지 않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런 기회들이 지나쳐버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작은 행동에 기회가 찾아올지."

이상하게 준희의 귀에 이야기가 박혔다. 준희는 휘파람에서 즐겨듣는 노래로 넘어가려는 영상을 멈추고 이어폰을 뺀다.

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며 주위를 돌아보다 옆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 쳐다본다.

"아저시 잠시만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았다. 성아였다. 준희는 고개를 들고 용기를 내어 떨리지만 곧은 목소리로 성아를 부른다.

준희 : " 차성아!"

블랙아웃

S#6 / 버스정류장/ 성아 시점/ 낮

잡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성아가 길을 뛰어간다. 그러다 준희를 발견하고 버스 정류장 뒤편에 몸을 기댄다. 헐떡거리며 숨을 고른다. 핸드폰을 쥔 손과 안 쥔 손을 모아 머리를 꼭 대고 기도를 한다. 그때 준희가 있는 정류장 뒤편에서 빨간 차 이론이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성아의 눈이 밝아지고 커진다. 준희를 한 번 쳐다보고 이어폰을 빼는 모습을 본다. 성아는 의도적으로 준희 옆을 지나가 뛴다. 그러고는 성아가 입을 크게 연다.

"아저시 잠시만요!"

블랙 아웃

Side B : 만들어낸 운 이라고 화면에 나온다.

출연진들 및 사람들 이름이 주루룩 나온다.

S#7 / 교실 / 성아 시점 / 낮

화면이 팟 켜진다.

(옛날 화질 느낌의 영상으로)

창문이 모두 열어져 있는 교실에 준희의 책상에 올려져 있는 흰꽃이 보인다. 그 꽃을 멍하니 보고 있는 성아. 성아는 흰꽃을 만진다. 이내 꽃이 바스라진다. 째깍째깍 시계가 큰 소리로 침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성아는 앨범에 들어가 빨간차 이론이라는 동영상을 역재생한다. 영상에서는 빨간차 이론의 내용 대신 휘파람 소리가 한 소절 들리다 마지막음이 계속 작게 이어진다. 그러더니 시계 소리가 점차 빨라진다. 다짐한 성아의 표정과 함께 성아가 교실문을 한 번 바라보고 카메라는 그 시선을 따라가다 다시 성아를 비추고 꽃을 비추다 창문을 비춘다. (여기서부터 바람소리를 넣는데 점점 커지면서 시계소리를 덮게) 장면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다가 교실을 조금 오래 비추다 다시 성아를 비추는데 성아는 없고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교실을 채우고 있다.

(블랙 아웃되자마자 모든 소리 다 꺼짐)

블랙 아웃 동시에 휘파람 소리가 나온다.

S#8 / 교실 / 낮

교실에서 엎드려 이어폰을 끼고 있는 준희가 잠에서 깬건지 눈을 감았다 뜬다. 준희의 얼굴에서 점점 멀어지며 블랙아웃